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박 강 우*

국문요약

성폭력 내지 범죄사건에서 전통적 형사사법모델은 재범예방의 실패,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것이 피해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회복적 형사사법모델이다. 회복적 형사사법에서 정의란 범죄자를 처벌하여 감옥에 보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관계자와의 관계회복과 범죄피해에 대한 ‘상처의 치료’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범죄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 회복적 사법에는 조정모델, 회합모델, 서클모델 등이 개발·시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남호주에서 실제로 적용된 청소년 성범죄사건에 관한 회합사례 2가지에 관한 심층연구를 소개하였다. 즉 사건의 개요, 회합과정, 회합 후 당사자들의 변화나 만족도 등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에 관한 찬반양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6).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머리말

성범죄 범죄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많은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형사사법절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구나 범죄피해에 현재의 형사사법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 범죄 가운데 일부 사례는 경찰에 신고되고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실제 기소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례일 뿐이며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몇 번씩 경찰, 검찰의 조사와 신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폄훼하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집요하고 적나라한 질문에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다. 강간죄 등의 성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지만,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품행, 평판 및 성편력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¹⁾

그동안 서구제국을 비롯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당한 형사절차법의 개정과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성편력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신문사항으로 삼는 것을 불허하거나²⁾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직접적 대면을 피

1)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9, 300-3-8면; 조국,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194면.

2) 이른바 강간방지법(rape shield law)의 입법이 그것으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1970년대에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국,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 미국 강간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69호,

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녹화된 비디오신문내용을 법정에서 제출하는 것, 재판장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신문을 비디오로 중계하는 것 등이 그러한 개혁의 내용이다.³⁾ 하지만 이러한 사법적 개혁은 피고사건의 진실발견과 피고인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전제하는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사안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소송모델로 여기는 당사자주의적 형사절차는 사건의 피해자를 사안의 참고인으로 설정할 뿐 형사절차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대이후의 응보적 형사사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적 형사사법 모델(restorative criminal justice model)이다. 회복적 사법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 정의로는 UN 비정부기구동맹(Alliance of NGOs)이 1995년 산하기구로 결성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실무단」이 채택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정의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⁴⁾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까지 포함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까지 범죄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⁵⁾

20세기 형사사법의 가장 큰 실패원인이 바로 형사사법의 주도권을 국가가 가지면서 피해자와 공동체구성원의 참여가 봉쇄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2002/10. 참조.

3) 2003년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내용들이다. 자세한 것은 박수희,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2006을 참조할 것.

4) 원혜옥, “외국의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4권 4호, 308면.

5) 이호중,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30면.

수 있다면 이 회복적 사법모델은 현재의 국가주도의 형사사법 내지 응보적 형사사법의 문제와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실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회복적 사법모델의 개념, 유형, 모델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회복적 사법모델의 목적과 유형, 찬반양론을 살펴본 후 실제 호주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사건에서의 집단적 회합모델의 두 가지 적용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우리 형사사법에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회복적 형사사법의 목적, 유형, 찬반양론들

회복적 사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가해자로 하여금 자기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깨닫고 피해자와의 대화 및 화해를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다.

회복적 사법의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 조정모델(Mediation Model), 회합모델(Conferencing Model), 서클모델(Circle Model)이 개발·시행되고 있다. 첫째, 조정모델은 중립적 제3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조정자는 배상액만 결정하고 사건의 처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배상합의는 법원에 의하여 강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로 재산범죄에서 많이 이용되는 회복적 사법모델이다. 둘째, 회합모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여하여 비전문적 논의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는데, 조정모델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분쟁당사자를 가정하는 민사법적 절차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려되는 형사사건에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모델이다. 아울러 회합모델에서는 필요시 각 피해자나 가해자의 지지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두 당사자간의 권력불균형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된다.⁶⁾ 셋째, 서클모델은 참가자의 범위에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그 가족과 지원자,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하는 점에서 회합모델과 비슷하지만 형사사건에 관심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⁷⁾

회복적 사법은 그것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조정(mediation)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비판,⁸⁾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다는 비판, 가해자측에 의하여 책임을 경감하거나 경미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그룹회합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주어지고 있다.⁹⁾

이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의 장점으로는 피해자의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의사소통적이고 유연한 과정을 통하여 성범죄 피해아동의 요구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개선 등이 주장되고 있다.

6) 원혜옥, 앞의 논문, 312면.

7) 박상식,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모델”,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5, 154면.

8) Ruth Lewis, R. Emerson Dobash, Russell P. dobash, and Kate Cavanagh, “Law’s Progressive Potential: The Value of Engagement for the Law for Domestic Violence”, *Social and Legal Studies* 10(2001): 105-130; Kelly and Radford, “Nothing Really Happened : The Invalidation of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in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ed. M. Hester, L. Kelly, and J. Radfor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6, p. 31.

9) K. Daly and S. Curtis-Fawley, “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in *Gender and Crime* (K. Heimar and C. Kruttschnitt eds.), New York, 2006, 233-4.

그럼, 과연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모델이 그들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데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회복적 사법은 확실히 기존의 응보적 사법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데 적합한 사법모델이다. 물론 피해자의 안전문제나 면대면 접촉에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개시요건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응보적 사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당사자주의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법정경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호주에서 이루어진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적용사례 2가지에 관한 심층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III.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적용사례

회복적 사법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 호주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2가지 회복적 사법사례의 심층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¹⁰⁾

지금까지 성폭력사건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심층조사는 비교적 자세히 회복적 사법의 진행과정과 범죄의 법적 절차에 관한 관계자들의 감정변화와 그 효과, 영향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기존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주장

10) 아래의 사건요지와 사례소개는 주로 K. Daly and S. Curtis-Fawley의 위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한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로지(Rosie)의 사례

가. 사건의 개요

로지(Rosie)는 매우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10대 소녀였으며, 가해자는 17세의 Rick이란 남자 청소년으로서 이들은 사건당시 병영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생들은 은폐와 엄폐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 여기서 로지는 낮에 발목을 다친 결과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릭은 다른 훈련생을 먼저 가게 한 다음 로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로지와 릭이 언덕을 올라갈 때 릭은 로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녀 옆에 누웠다. 그는 로지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 다음 릭은 그의 손을 그녀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그녀의 국부주변을 움켜쥐었다. 로지에 따르면 이러한 릭의 행위는 4분 정도 계속되었고 릭은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로지는 저항하였다. 로지는 계속하여 릭의 배를 팔꿈치로 가격한 후 일어나서 도망하려 하였다. 릭은 로지의 벨트를 잡고 로지가 도망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로지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캠프로 귀환하여 이 사실을 바로 다른 생도에게 알렸다.

3시간이 지난 후 경찰관이 캠프에 도착하여 로지를 인터뷰하였다. 로지는 “여성 경찰관이 나를 인터뷰했으며 그녀가 이런 일에 매우 능숙했다. 그녀는 내가 떨고 있기에 나를 위로했으며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그녀는

정말 친절했다”고 회고하였다. 릭은 지방경찰서로 인계되어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신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로지의 가슴과 등을 문지른 사실은 시인했으나 로지의 국부주변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는 외설적 폭력(indecent assault)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로지의 할머니는 사건 다음 날 그녀의 왼쪽 허벅지에서 조그마한 찰과상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로지에게 남아있는 사건처리의 부정적인 강렬한 기억은 캠프에서 그녀를 귀가시키지 않고 관계자들이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 계속 그녀를 붙잡아 두었다는 점이다. 로지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자신감과 집중력의 상실, 그녀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남자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녀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느끼기 시작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고 나중에 회합을 위해 릭을 다시 보았을 때 매우 놀랐다. 사건 당시에 릭이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후부터 로지는 빨간 모자를 쓴 남자만 보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나. 회합(conference)에 이르기까지

로지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이후부터 회합이 개최되기까지는 15개월이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사건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경찰이 사건을 법원에 보고하는데 매우 게을러서 4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회합에 회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청소년 사법보좌관(YJC)은 “회합이 12개월 전에만 열렸어도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고 회고

하였다. 그녀(YJC)는 릭과 로지 모두 절차의 지연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릭의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분개했다고 말하였다.

회합전에 릭은 Mary Street 프로그램(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의 상담가인 그웬(Gwen)과 몇 차례 만났다. 그웬은 YJC에게 릭이 이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고 있어서 그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YJC는 회합 이전 릭과 3번 정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릭은 회합에 대하여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릭의 어머니는 YJC에게 이 사건이 가족 전체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군인이 되겠다는 릭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YJC에 따르면 릭의 어머니는 이 회합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이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하지만 릭의 어머니는 “이것보다 중대한 사건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YJC는 회합이전 로지와 전화통화에서 로지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였는데 그것은 회합에 로지가 참석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해는 바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법정절차의 측면을 암시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YJC는 회합과정에 대하여 로지에게 설명하면서 그녀가 피해자이고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음을 일깨워주었다. YJC는 회합이전에 로지가 자신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그것은 로지가 도시로부터 자동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YJC는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릭 역시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YJC는 회합이전에 회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만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로지는 회합의 개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YJC가 로지에게 비디오중계를 통하여 회합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을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 로지는 회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모르고 있었다. 로지는 회합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회복적 사법에서 사건을 일일이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다. 회 합

회합 당일, 로지와 할머니는 아침 일찍 버스를 5시간이나 타고 남호주 에들레이드(Adelaide)시에 도착하였다. 회합이 끝난 후 이들은 비행기로 귀가하였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했으며 YJC는 공항까지의 택시비만을 지원하였다. 회합의 참석자는 릭, 릭의 부모, Mary Street 상담가 (그웬), 로지 그리고 할머니였다. 회합참가자 구성의 불균형은 로지의 상담가가 거리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로지의 유일한 지원자는 할머니뿐이었기 때문이었다. YJC가 회의를 주재하였고, 남자경찰관이 참석하였다.

회합 당시 릭은 18살이었고 로지는 13살 이었다. 회합에 참가함에 있어 로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릭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로지는 또한 릭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직접적 해명을 듣고 했으며 그가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11) A. Konradi and T. Burger, "Having the Last Word", Violence against Women 6 (2000), 351-395, 365.

다짐받고 싶었다.

로지가 회합이 있는 방에게 들어갔을 때, 릭과 그의 부모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이점이 로지에게는 위협적이었다. 회합시간 동안에 로지는 릭이 사건에 관하여 얘기할 때 “무섭고 화가 났었다”고 느꼈다. 그는 경찰의 진술의 일부분에 동의하지 않았고 로지의 국부주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릭이 자신의 행위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데에 분개했으며, 그의 부모와 그웬이 릭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릭의 경험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로지는 이 사건이 릭에게 모든 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몸짓과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그가 매우 후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이 통제되거나 릭이 매우 침착하였다(very placid)고 느꼈다. 로지는 릭이 원래 매우 “건방지고 장대하고 거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실제로 “친절한 거인”(gentle giant)이었다.

로지는 릭의 부모들이 그녀에게 단결하여 맞서고 있다고 느꼈다. 그웬 또한 그녀에게는 위협적이었고 되풀이하여 릭을 변호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불행히도 그웬이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떠나기 전 Mary Street 프로그램에 릭이 참여할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YJC는 사건에 관한 로지의 설명을 제지하였다. 그웬은 릭이 상담과정에서 매우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몇 개월 정도로 족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웬과 같은 전문가는 회합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YJC가 릭에게 사건에 관하여 말하라고 요구했을 때 릭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when it happened)와 같이 매우 중립적 용어를 사용했지만

YJC는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제지하면서 “네가 상스럽게 로지를 공격했을 때”(when you indecently assaulted)와 같이 말하도록 정정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YJC는 가해자와 그 지원자들이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할 때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찰관은 로지를 강력히 변호하였다. 그는 릭이 법을 위반했으며 회합에 회부된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로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YJC는 사건 당시 릭이 로지를 전혀 인간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녀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릭이 지나치게 앞서 갔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합의 개최가 릭에게 의미가 있기는 했지만 릭은 로지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았다. YJC는 로지가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로지는 자신 있고 솔직하게 사건을 설명하였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릭에게 말했으며 이점이 회합의 가장 큰 성과이다”라고 YJC는 말하였다.

라. 사과와 합의

회합과정에서 릭은 로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YJC에 따르면 “그는 사과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 그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쳤지만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때 릭의 어머니는 “릭, 로지를 보고 말해라”라고 깨우쳐 주었다. 즉 릭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점만을 강조했지만, 로지는 “이봐 릭,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네 사과를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네가 이런 짓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라고 대답하는 등

릭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로지의 태도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건에 관한 창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회합과정에 대한 로지의 주된 비판은 2가지인데 첫째, 회합이 절차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릭의 부모와 그웬이 회합과 합의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로지는 릭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양로원 봉사를 하기 원했지만, YJC는 로지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결국 릭에게 사회봉사명령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합의의 내용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 로지가 아는 - 다른 사람은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로지는 YJC의 위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릭은 Mary Street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웬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상담을 받거나 릭과 그의 부모들이 로지에게 사과문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마. 회합의 결과

회합이후 로지는 더 이상 릭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릭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는 것 같았으므로 그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합은 로지로 하여금 메시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느끼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뀌어 놓았다. 회합에 대한 로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지는 이번 사건처리 방식에 만족하였다. 즉 법원에 가지 않고 만인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달리 회합과정에서 로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회합의 처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세의 불균형이란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2. 타냐의 사례 : 가정내 성폭력

가. 사건, 경찰의 신고, 즉각적 대처

타냐가 12살이었을 때 타냐의 엄마인 내시는 닉과 재혼하였다. 닉에게는 두 아들인 앤디(11세)와 잭(16세)이 있었다. 재혼 1년후 타냐는 의붓 오빠인 잭이 그녀를 성적으로 만지고 접촉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5-6개월 동안 성적 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어느 날 잭은 타냐에게 뒤뜰에 있는 자신의 트레일러로 오라고 해서 타냐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타냐는 사태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잭은 그녀를 강압하여 자기의 트레일러로 데리고 간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3개월 동안 몇 차례의 성관계가 추가로 있었다. 인터뷰과정에서 타냐는 잭이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고 “자신을 벽에 던지고 밀어서 등에 수많은 찰과상과 상처를 입혔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자신은 잭과의 성관계를 수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이 공포와 협박 때문이었다고 답하였다.

잭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4개월 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타냐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인했지만, 모두 그녀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번 성관계시 마리화나와 알콜을 사용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불법적 성관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 신고된 후 타냐는 조부모의 집으로 이사했다. 잭은 이후 친부와 계모와 계속 싸움이 벌어져 부모집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는 자신의 친모의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친모를 칼로 협박하여 쫓겨났다. 그는 현재 주거가 부정하다. 그는 정신병원에도 잠깐 수용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경찰개입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잭은 회합이전에 Mary Street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 잭은 양극성 정신질환(bipolar disorder)으로 정신의학과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 타냐는 잭이 무서웠기 때문에 잭과의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건의 진상은 타냐의 학교선생님이 타냐의 거친 행동 때문에 타냐의 엄마를 학교로 호출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타냐의 할머니가 그녀를 학교에서 픽업한 후 왜 말썽을 피우냐고 묻는 과정에서 타냐가 잭과의 관계를 털어놓은 것이다. 타냐는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마 할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타냐는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을 기뻐했으며 잭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응 만족하였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려 좌절하고 있었다.

경찰신고이후 타냐는 몸과 얼굴의 상처와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그녀의 담당의사는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경찰조사, 상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를 3주간 결석하였다. 그녀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두통과 수면장애, 타인에 대한 의심, 학교에서의 집중력 장애, 자신감 상실 등의 증세를 보였다.

나. 회합에 이르기까지

회합이전까지는 타냐, 엄마, 계부와 그리고 계부와 잭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타냐의 부모는 그녀와 잭이 성관계를 가진데 대해서 타냐에게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타냐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YJC는 여성 경찰관에게 회합의 균형을 위해서 타냐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타냐가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관점이 필요하다”. YJC와 여성경찰관은 타냐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했는데여기서 YJC는 회합에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였다. 처음에 YJC는 전화로 타냐의 할아버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타냐가 회합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받았다.

타냐는 YJC의 가정방문을 기억하면서 처음에는 잭이 구속되지 않고 이 사건이 회합에 부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녀가 보았을 때 잭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고 그가 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하였다. 그녀가 보기에 회합이란 잭이 아주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로 보였다. 그녀가 회합참석을 꺼렸던 이유는 잭을 보거나 잭과 얘기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타냐는 그녀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녀의 엄마와 계부의 집에 되돌아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녀의 조부모는 타냐를 이 사건의 완전한 희생자로 적극 지지했지만, 그녀의 엄마(넨시)와 계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잭과 타냐의 ‘억제되지 않는 호르몬’(rampant hormones)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어느 날 방에 들어갔을 때 타냐가 잭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것을 기억하였다. YJC가 넨

시에게 타냐가 회합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낸시는 “그것은 잘못 되었소. 그 둘은 회합에 참석해서 둘 다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타냐는 회합이전에 어머니와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의 엄마는 자신이 짝을 유혹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타냐는 처음에 회합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성경찰관이 타냐를 만나 다시 설득함으로써 회합의 처음에 피해자인 타냐가 피해진술을 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타냐는 회합에 참가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만약 자기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합의 결정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타냐는 이 때 회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짝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고 그의 범행이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타냐가 회합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즉, 그녀는 짝을 두려워했고 그녀의 엄마와 계부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그녀의 조부모도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였다. 그녀는 사회사업가가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YJC는 회합이전에 짝과 한번 전화통화를 하였다. YJC는 짝이 회합개최에 아주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짝은 타냐가 성관계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참가자라고 생각하여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짝의 책임부인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었으며 짝의 아버지인 닉은 짝이 Mary Street 상담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면 이것이 짝의 정신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어쨌든 회합이전에 짝은 이번 일에 대하여 낸시에게 사과하였고 타냐가 이번 일에 대

하여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YJC는 회합에서 낸시가 타냐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 회 합

사건발생후 1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회합이 개최되었다. YJC, 여성경찰관, 잭, 그의 아버지(닉), 타냐, 그녀의 엄마(낸시), 그리고 타냐의 사회사업가가 참석하였다. 회합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예측되었듯이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폭력적 언사가 회합 초반에 돌출되었다.

YJC는 이번 회합이 아주 ‘극적이었다’(dramatic)고 회고하였다. 잭은 회합 시작 30분전에 도착하여 칠판위에 무엇인가를 ‘미친듯이’(in a manic manner) 써 갈겼고 YJC는 이점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였으며 잭이 회의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였다. YJC는 회의장의 자리배치를 다시하기 위하여 회의장을 좀 더 큰 방으로 옮겼다. 우리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좀 더 큰 테이블이 필요했다. 그래서 타냐를 테이블 한 쪽 끝에 앉혀서 잭의 폭언과 소란으로부터 타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¹²⁾고 회고하였다. 나중에 회의장은 다시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잭의 아버지인 닉이 매우 화가 나서 잭을 때리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회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냐에게 이 사건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말해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비록 타냐가 잭의 사과가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잭이 타냐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합의 처음에 타냐는 잭의 행위로 인한 영향을 보고하였다. “나는 처

12) K. Daly and S. Curtis-Fawley, 앞의 논문, p. 249.

음에 책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나를 쏘아보았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합의 첫 단계에서는 책의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타냐가 생각하기에 책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타냐는 되풀이 하여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서 책이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절하 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경찰관은 수차례 책의 행위를 저지하고 그가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회합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책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괴상한 목소리(로봇과 같은)나 기이한 얼굴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였고, 왜 타냐와 성관계를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책은 “나는 머리로 생각하는 대신에 거시기(사타구니를 가리키며)를 생각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YJC는 책의 태도가 매우 건방져 보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타냐의 부모들은 회합전과는 달리 타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낸시는 매우 균형감있게 타냐를 지지했으며, 닉은 책이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꾸짖기도 하였다. YJC는 타냐가 회합시에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편파적이지 않았으며 사태를 과장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라. 사과와 합의

책은 타냐에게 사과하려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의 사과는 진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관이 잭에게 “네가 진정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진지하게 말하라”고 충고를 하였다.

잭과 타냐의 합의는 다음 사항을 담고 있다. (1) 회합에서 타냐에게 사과하는 것 (2) 12개월간 약물·알코올남용 상담과정에 참석하는 것 (3) 아버지가 주선하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에 참석할 것 (4) 카드를 구입하여 사과문을 써서 타냐에게 선물할 것 (5) 그의 부모 집을 방문할 때는 집의 규칙에 따를 것 (6) 부모의 감독없이 타냐와 같이 있지 말 것 (7) Just Consequences의 한 세션에 참석할 것(왜 젊은이들은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한 프로그램).

타냐는 위의 합의가 잭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잭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기를 원했으나 누구도 그녀의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논의하면서 녀은 잭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것은 잭의 불안한 정신건강 때문이었다. 위의 합의사항 중 선물을 제안한 것은 YJC로서 그는 잭이 상담과 같은 것 프로그램 이외 타냐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타냐는 자신의 사건이 다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위의 합의가 잭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만약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갔다면 사태는 더 복잡했겠지만 합의사항은 훨씬 낳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밖에 타냐가 회합에 대하여 불만을 느꼈던 점은 회합시간이 너무 길어서(3시간) 배가 고팠고 아무런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 회합이후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타냐는 회합에 참석했던 것을 다행

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알지도 못해서도 마구 말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회합전후에 책에 대한 타냐의 감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전히 심리적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회합이 이들 문제를 다루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YJC와 타냐는 회합의 이점 내지 장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YJC는 회합으로 인하여 타냐의 입장과 진술이 뒷받침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타냐는 이 회합에 대하여 약간 실망하기는 했지만, 시간낭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YJC는 재판에서 이번 회합을 통하여 재판에서보다 긍정적 효과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도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해서 타냐는 이번 사건이 회합보다는 법정에서 처리되기를 원했으며 책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다.

바. 타냐의 사례를 통해서 본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

타냐와 책의 회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타냐의 안전에 대한 책의 위협이었다. 타냐가 느꼈던 힘 내지 세의 불균형은 타냐와 책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녀와 다른 어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책의 행동과 말은 책의 아버지, 계모, YJC, 경찰관 등에 의하여 제지되었음에도 그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범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타냐는 책의 이러한 언행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덩어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타냐는 책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으므로 회합의 결과는 그녀가 보기에 책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었다.

타냐가 회합과정에서 비록 효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영향을 설명하긴 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타냐가 원하는 책의 충분한 책임시인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갔더라도 책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법정에서 제지될 수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책과 그의 아버지, 계모 사이의 관계회복, 그리고 책과 타냐, 타냐의 어머니, 계부와의 관계회복이 목적이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는 불확실하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유용성검토에 관한 논의는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논쟁이나 양극단적 대립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헌연구의 논의는 피해자의 상처복구나 회복의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이 법정사법 내지 응보적 사법보다는 월등히 우월함을 가정하고 있다. 위에서 로지와 타냐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본 회합의 효과는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 또한 제기하고 있다.

우선, 회합개시의 전제로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시인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가장 다투어진다. 로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사실을 시인하다가도 부분적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타냐의 사례처럼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임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릭과 책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로지, 타냐,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이들의 책임부인을 제지하고 제어할 수 있

다는 회합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회합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시인이 흔히 유죄인부협상(plea bargaining)에서의 책임시인과 어떻게 다른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 차이는 잘 조직되고 운영되는 회합에서는 가해자의 책임부인이나 피해의 최소화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반박될 수 있지만, 일반사법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지와 타냐의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의 주장과 상반되게 크레트니와 데이비스(Cretney and Davis)가 “피해자는 보상이나 배상뿐만 아니라 처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¹³⁾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이 처벌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주장은 위 사례들에서는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둘째, 로지와 타냐가 생각했듯이 법원에서의 처벌이 회합의 것보다 더 엄할 것이라는 가정은 남 호주나 뉴질랜드의 법원판결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¹⁴⁾ 이들 법원은 회복적 사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된 사례에서 이러한 자신의 권한을 좀처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지와 타냐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자신이 입은 범죄피해를 극복하는 과정과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성폭력이 일어난 맥락과 지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로지의 성폭력 피해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에 비하여 타냐의 경우는 의붓오빠에 의하여

13) A. Cretney and G. Davis, "Punishing Violence, London: Routledge, 1995, p. 178.

14) L. Kelly and J. Radford, "'Nothing Really Happened': The Invalidation of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in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ed. M. Hester, L. Kelly, and J. Radfor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6, pp. 19-33.

상당히 오랜 기간 성폭력에 시달렸다. 타냐가 느꼈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자신의 어머니와 계부가 자신이 책을 유혹했다고 보는 점이었다. 따라서 타냐는 로지와 달리 가족의 지속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요 지지자인 조부모가 참석 못하는 것을 알면서 회합에 참가한다는 것이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회합의 성공 조건으로 강력한 지지네트워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¹⁵⁾ 가족이 없다면 성폭력상담가 등이 참석하여 책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하고 감독할 인물이 꼭 필요하다.

위에서 필자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합모델적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응보적 사법내지 법정사법에서는 불가능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회합과 같은 회복적 사법에서는 전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자의 신원과 정당성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의 자기 잘못의 시인이다. 법정사법에서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신될 수 없지만 회합과 같은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시인이 바로 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요구된다. 물론 회합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합의 다른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되고 제지될 수 있다. 이점에서 회합과 같은 회복적 사법모델은 전통적 형사사법이 처한 곤경을 제거하여 줄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실천적 형사사법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5) S. Curtis-Fawley and K. Daly, "Gendered Violence and Restorative Justice: The Views of Victim Advocates", 『Violence against Women』 11(5), 2005, 603-638.

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Park, Kang-Woo*

Despite decades of legal reform, the police and courts continue to fail sexual victims. The majority of sexual victims do not report the offense to the police, and for the victims who do report, the likelihood of their case reaching the court is low. What can should be done?

On this question, some scholars propose more inclusive definitions of sexual violence and further legal reform to make court processes more protective for victims such as admitting video-recorded interview with victims. But this legal reform may be deadlocked because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lways demands finding of truth and punishing the defendant in case.

Assuming that an offender has admitted responsibility for an offense to the police, an alternative to court prosecution is a conference, one type of restorative justice. The restorative justice(RJ) can be used when diverting cases form court or as presentencing advice to judicial officers. At present there are only two jurisdictions in the world, South Australia and New Zealand, that routinely use RJ in youth sexual court cases.

* Professor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In this paper, we I described in detail two sexual assault cases that were diverted to conferences. Both cases had youthful male offenders and female victims, and both were finalized by a family conference in South Australia. In a conference, an admitted offender, victim (or victim representative), their supporters, and other relevant parties, along with a police officer and facilitator, meet to discuss the offence, why it came about, how it affected the victim and others, and to decide on a penalty. I documented the victims' experiences with the police and what did occur in their face-to-face encounter with the offender.

주제어 : 성폭력, 회복적 사법, 회합,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Keywords : sexual assault,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 family violence, crime victim